

## 캔디스(Kandys, Candys)와 메디안 드레스(Median Dress)에 대한 소고

장 영 수

독일펠른대학교 미술사연구소 연구원, 한양대학교 강사

캔디스와 메디안 드레스는 기원전 약 5세기경 에 페르시아 인들이 입었던 옷을 의미한다. 메소포타미아 북쪽으로 솟아 있는 아시아 산악지대에 살았던 페르시아 족은 수 백년 동안 앗시리아와 바빌로니아의 지배를 받아오다 기원전 538년 마침내 이들의 지배에서 벗어나 자유를 얻고 광대한 이 지역의 종족들을 병합하여 페르시아왕국을 세웠다. 기원전 7세기 경 이란 서북부 우르미아 호수 주변에 메디아 왕국을 세웠던 메디아 족도 이때 페르시아에 병합되었다. 페르시아 인들은 세상에서 외국의 풍습을 가장 잘 받아들였던 민족으로, 메디아의 의상이 자국의 것보다 이름답다고 하여 그것을 받아들여 주로 궁중복과 귀족복으로 착용했다.

메디안 드레스는 기원전 8-6 세기에 메디아 인이 입었던 옷으로 발꿈치까지 닿는 넓고 긴 로브(Robe)식의 옷이다. 소매의 끝 부분이 갈매기 모양의 주름을 이루는 것이 특징이다. 이 옷은 기원전 500년 경 페르세폴리스(Persepolis)에 있는 아프다나(Apdana) 계단 (아케메네스왕조, Archamenian Empire, 페르시아 다리우스 1세 (Persia, Darius I)가 페르시아의 고향 파르사에 지은 궁전에 있는 계단)에 표현된 부조 장식에서 그 형태가 잘 관찰된다.

캔디스는, 기원전 6세기부터는 메디아 인들이, 기원전 5세기부터는 페르시아 인들이 입었던 긴 코트(coat)로, 높은 지위에 있었던 사람들의 옷이었다. 길이는 땅에 끌릴 정도이고, 상의와 함께 재단된 긴 소매가 특징이다. 앞의 가장자리 부분이 접혀져서 어깨위에 걸려져 있는 것이 또한 특징이다. 접혀진 끝 부분에 끈이 달려있어 가슴 위에서 묶여지는 듯 하다. 페르시아 인들은 이 캔디스를 어깨 위에 걸치고, 소매는 팔을 끼지 않은 채 그냥 내려뜨렸다.

또한 페르시아 사람들은 캔디스를 그들의 토속복인 바지 저고리(tunic)위에 입거나 혹은 메디안 드레스 위에 입었다. 이 캔디스는 후에 중국에 전해져서 중국 지배계층의 옷으로 착용되었고. 기원후 9세기에는 동유럽에도 전해져서 헝가리에 이르렀고, 점점 발칸반도에 널리 퍼졌다.

이 연구는 역사적인 사건, 현상들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복식의 형태를 그 역사적인 배경을 중심으로 정확히 분석하려는 것이며, 지금까지 잘못 인식되어 온 복식의 형태를 수정하기 위함이다. 지금까지 복식사 책에는 위의 메디안 드레스를 캔디스로 분석해놓았는데, 이는 잘못된 것으로 생각되며, 본 연구에서는 이를 중심으로 분석하였다.